



데이빗 영맥주석

요한일서

David Spiritual Commentary

들어가는 말

'데이빗 영맥주석'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한 주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셨을 때는 분명히 무슨 의미를 두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성경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데이빗 영맥주석'은 저자가 하나님께서 직접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여쭙가면서 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주석보다 더 소중하고 더 값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싶다면 이 주석을 권해 드립니다. 이 주

석으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삶이 놀랍게 변화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보
게 될 것이며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성경
이 심령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 주석은 설교하는 목회자에게도 매우 귀한
주석이 될 것입니다.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목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아무쪼록 이 주석을
통해 성경이 활짝 열려지길 축복합니다.

저자 데이빗리 목사 올림

요한일서 1장 =====

[요일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
으로 만진 바라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성경책은 창세기와 요
한복음 그리고 요한일서 뿐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호 엔 아프 아르케스>이라는 표현은 요한복음의 ‘태
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와
매우 흡사합니다. 이를 통해 요한일서의 저자가 요
한복음의 동일한 저자임을 짐작케 해줍니다. 요한일
서와 요한일서, 요한삼서가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썼다는 증거는 없으나 내용과 정황상 사도 요한이
쓴 책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서신서는 서신을 읽는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시작하는데 이 서신서는 곧바로 ‘예수
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말로 시작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생명의 말씀’으로 표현했
습니다. 이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을 말
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요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예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해석하기 보
다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시며 예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주신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
순히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맘에 새기며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높은 단계의 내용을 담
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며 예수님은 '말씀'
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서 그리스도가 되실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임
할 수 있습니다.

[요일 1: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는 이미 예수께서 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
니다. 이는 곧 예수께서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빌 2: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빌 2: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빌 2: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내용을 '말씀'으로 새겨놓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꽃힐 때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는 말은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요 1: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일 1: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요한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그런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를 우리는 곰곰히 생각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사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도요한은 예수님과 사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귀고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런 사귀고도 과연 우리에게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런 사귀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사도요한이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 계실 때 아주 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친할 수 있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사귀고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아버지와 깊은 사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사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의 사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사귀이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귀이 필요합니다. '사귀이'라는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사귀이 있는 교회는 성도끼리도 사귀이 좋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교회입니다. 가정도 이런 사귀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와의 사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사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절로 자녀와의 사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가정이 천국가정이 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요일 1: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성도들에게 발송했던 까닭은 '기쁨'을 나누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가 누린 기쁨은 주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살아 계실 때에 누리셨던 기쁨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누려야 합니다.

“[요 17: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누리셨던 기쁨은 <카라>입니다. 이 <카라>의 기쁨은 탄산수가 터져나오는 듯한 기쁨입니다. 그냥 가볍게 웃는 정도의 기쁨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리내서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뼈 속 깊이 스며드는 기쁨입니다. 온 몸으로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영혼육이 흔들리는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요일 1:5]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살아계셨을 때도 가르침을 받았지만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았

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 중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빛'과 '어두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 '빛'은 '어두움'을 몰아냅니다. 하나님은 100% '빛'으로만 존재하십니다. 0.1%의 어두움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는다면 우리에게는 '빛'이 있을 것입니다. 어두움 함께 공존하는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 전혀 없는 빛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빛은 어두움과 함께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두움과 함께 공존하는 빛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이 빛과 함께 어두움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두움이 없습니다. 어두움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두움이 없는 삶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온전히 빛으로만 살아가는 삶에 대해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요일 1:6]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사도 요한은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우리 보고 "너는 거짓말장이야"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과 사귀었다고? 그것은 거짓이야"라고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그런 심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을 한 것일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요한의 말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더욱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의 말은 다소 기분 나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의 말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어둠 없이 빛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해야 그게 가능할까요? 사도 요한은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글쎄요. 사도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두움이 전혀 없는 빛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어두움이 전혀 없이 빛으로만 존재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 어두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현실이고 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가지 '거짓'이 있고 여러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빛과 함께 어두움이 존재하는 것을 가장 큰 '거짓'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빛과 함께 어둠이 존재하는 것을 가장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거짓말장이가 아님을 밝히려면 어두움이 없어야 합니다. 만일 나의 행동이 진리의 행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두움이 없어야 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빛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요일 1:7]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귀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피'는 곧 '생명'입니다. 유대인들은 피가 곧 생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도 피가 곧 생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레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막에 뿌려진 피는 곧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피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물론 '세상의 피'로 나타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대부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출애굽 하기 직전에 장자의 죽음을 불러왔던 재앙이 있었을 때 그 재앙을 막기 위해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졌던 양의 피 역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출 12:13]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죄가 없어져야 생명이 생깁니다. 죄는 독과도 같습니다. 세포 속에 독이 있으면 세포가 죽습니다. 사람 몸 속에 독이 퍼지면 병들거나 죽게 됩니다. 죄는 곧 독입니다. 죄는 우리에게 사망을 줍니다.

“[약 1: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살려면 죄가 없어야 합니다. 담임목사의 죄가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죄도 깨끗이 씻겨져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나라가 살기 위해선 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자유한 나라가 되서는 안 됩니다. 죄를 씻는 보혈로 넘쳐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저기서 주님의 피가 솟아나는 샘물이 많아야 합니다. 온 백성이 예수의 피로 샤워를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요일 1:8]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일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10]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9절에서의 '자백'이라는 말은 <호물로게오>인데 이
단어는 '고백하다', '시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
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고백해야 합니
까? 피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상대
방에게 시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자백하길 꺼려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하는 것'(8
절)이라고 발뺌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가 없다 할
지라도 하나님께 지은 죄가 있을 것입니다. 알고 지
은 죄가 없을지라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것입니
다. 그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롬 3:10]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
으며"

죄가 없다고 발뺌하는 행위보다 오히려 죄가 있다
고 자백하는 행위가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는 사람의 죄값을 모두 지불해 주십니다.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며 억압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죄를 지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지 않아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은 죄를 자백해 보십시오. 피해를 당한 사람을 찾아 가십시오. 그 사람에게 지은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함이 임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 못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영혼이 자유해야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

[요일 2:1]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2]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
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일 2: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일 2:4]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
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
니하되

[요일 2: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일 2:6]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람은 죄에서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억압받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억압받는 삶이 되길 원치 않으십니다. 죄에서 자유함
을 입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스스로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없습니다. 죄 값을 모른

체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지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들을 위해 '대언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그 '대언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 '위로자'라는 뜻으로 '다른 보혜사' 또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이십니다. 변호사 없이 법정에서 서면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서 서면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의 변호사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을 느끼는 사람은 용기가 생기며 힘을 얻습니다. 변호사되신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형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께서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제일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요일 2:7]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요일 2:8]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새 계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새 계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새 계명'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는 '새 계명'을 잘 지키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가리켜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이는 그가 '새 계명'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새 계명'은 곧 '사랑'입니다. 이는 이미 성경에서 언급한 것이고 예수께서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첫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랑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강령'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613가지의 많은 계명을 2개의 계명으로 함축시키신 것입니다.

[요일 2:9]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요일 2:10]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요일 2:11]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다하는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빛 가운데

데 거하는 것인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빛에 거한 삶을 살고 있다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일 2: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죄의 권세가 어떠한지 알고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에 사로잡혀 사는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롬 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전도의 조건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멋진 예수를 전하고 예수로 복 받는 내

용을 전하는 것보다는 예수로 인해 죄 사함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가장 근본입니다.

[요일 2:13]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앎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요일 2: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3절과 14절은 같은 내용입니다. 아비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청년들은 청년을 가리킵니다. 물론 14절의 아이는 어린 아이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의 나이를 구분해서 각기 다른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성도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악한 자를 이겨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하며 악한 자를 이겨야 합니다.

“[요 17:3]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에 대해 아는 것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얕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곧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제자들은 모두 베드로와 같은 신앙고백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고백을 지니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 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도 이러한 신앙고백을 갖고 있습니까? 진정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또 한가지 사도 요한이 강조한 내용은, 악한 자를 이기는 것입니다. 악한 자는 마귀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천국에 거하지 못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 있습니다.

“[계 3: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요일 2: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밝혔는데,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은 악한 자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요일 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 세상의 주인은 '사마귀'입니다. 사탄과 마귀, 그리고 귀신이 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 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잠시 세상의 권세를 잡도록 허용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마귀'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마귀'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우리가 사는 땅은 천국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계 20:1]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계 2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
라 잡아 일천 년 동안 결박하여
[계 20:3]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간 놓이리라”

[요일 2: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요일 2: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귀는 이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삼기 위해 인간을 유혹하고 공격하며 방해합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가지를 통해 마귀는 인간을 유혹하고 공격하며 방해합니다.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육신에 해당되는 유혹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5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입니다. 이 다섯가지 감각을 통해 마귀는 인간

을 유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섯가지 감각을 통해 죄를 범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인간의 혼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좋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좋아하며 좋은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좋은 옷을 좋아하며 좋은 곳 여행하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이 좋아하는 것들을 잘 알고 있는 마귀는 이런 혼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인간을 유혹합니다.

이생의 자랑은 인간의 영의 영역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마귀가 결코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귀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생의 자랑거리를 제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는 '돈'이 곧 이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곧 이생의 자랑거리입니다. 이러한 이생의 자랑거리를 통해 사람들은 마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6: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검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요일 2:18]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경계의 대상은 '적그리스도'였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안티크리스투스>입니다. 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이며 사람들로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카톨릭 교황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모두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빚어진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라고 말하고 있듯이 적그리스도는 한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세계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적그리스도가 도처에 깔려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마 24:23]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마 24: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요일 2:19]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요일 2: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일 2:21]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앎을 인함ियो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요일 2: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요일 2: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를 부인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는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만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치 않는다면 어찌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만 유일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천국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모든 권세를 다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부인해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요일 2: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요일 2: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일 2:26] 너희를 미혹케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요일 2: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일 2:28]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일 2:29]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적그리스도에게서 자유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성령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님의 그런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 15:26]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요일 4: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이미 성령님이 그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지 못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충만한 기름부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지라도 우리에게 기름부음이 한 방울도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그 기름부음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강

옆에 앉아 있을지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강물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생명수가 흐를지라도 마시지 않으면 모래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기름부음이 없다는 사실에 의아해 합니다. 믿겨지지 않는 표정을 짓습니다.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에게 기름이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부음을 얻기 위해서는 기름부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얻어 먹으려면 떡 줄 사람 옆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영화를 보려면 일단은 만나야 합니다. 떨어져 있으면 아무 것도 취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름부음을 취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불러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필요하다고 표현해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열정이 필요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맨 입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기름부음이 있어야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훨씬 강력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훨씬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부으심은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기름부음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은 지혜입니다. 기름부음은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합니다.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름부음은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합니다. 기름부음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좋은 스승입니다. 좋은 스승이 우리를 가르칠 때 기름부음으로 가르치십니다. 아무리 좋은 스승을 만났다 할지라도 배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기름부음을 공급받지 않으면 성령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가정에도 그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름부음을 공급받으면 내가 달라지며 가정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변화를 받으려면 기름부음이 필요합니다. 설마하니 교회에 성령님이 안 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계신 교회가 힘없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기름부음이 고갈되어서입니다. 기름부음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자동차에 기름이 공급되어야 하듯이 교회도 기름부음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성도도 기름부음이 필요하지만 목사도 기름부음이 필요합니다. 자녀도 기름부음이 필요하지만 부모도 기름부음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3장 =====

[요일 3: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자녀'라는 말은 <테크나>인데 이것은 출생으로 인해 이뤄진 자녀를 의미합니다. 이와 동의어로 쓰여진 <휘오스>라는 '자녀'는 입양으로 이뤄진 '자녀'를 뜻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로 <테크나>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녀'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해 살면서 세상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테크나>도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휘오스>도 맞습니다.

[요일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사도 요한은 우리의 결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의 결말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결말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주님처럼 될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이 세상은 천국으로 변화될 것이고 우리는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며 천사처럼 지내게 될 것입니다.

“[마 22:30]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요일 3: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우리로 하여금 깨끗함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권고한 까닭은, 주님과 같이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처럼 되기 위해서는 깨끗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레 19:2]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

님이 기록함이니라”

[요일 3: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요일 3:5]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일 3:6]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요일 3:7]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요일 3:8]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요한은 매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죄가 하나도 없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일까요?

“[롬 3:10]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며 의인이라고 자부할 사

람이 한 사람도 없는데 어찌하여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한 것은 죄가 어디서부터 왔느냐에 포커스를 맞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죄는 마귀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 죄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맨 처음에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마귀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마귀 자체가 죄악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모든 죄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귀가 죄악의 덩어리인 것은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마귀 편에 속한 사람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귀 편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짐승은 마귀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부여 받았습니다. 짐승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훼방하며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계 13: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훼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훼방하더라"

[요일 3:9]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음이라

[요일 3:10]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요일 3:11]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요일 3:12] 가인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찜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구분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의'와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의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세상의 의가 하나님의 의인줄 잘못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의는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 '이신칭의(以信稱義)'라고 합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무슨 믿음입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롬 10: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의' 외에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사랑은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지 않고 형제에 대한 사랑을 언급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은 '믿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신앙고백을 가장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

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요일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런 면에서 생각해볼 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까?

[요일 3:13]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일 3:14]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요일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요일 3:16]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에 저절로 형제를 사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으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진짜 믿음이 있고 없느냐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면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15절 상)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입니까? 살인은 그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데 미워하는 것을 살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억지스런 말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런 표현은 예수님의 표현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만해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5: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선 결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요일 3:17]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일 3:18]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 3:19]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요일 3:20]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일까 보냐

사도 요한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과 혀로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말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

량은 값어치가 없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이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형제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먹을 양식이 없는데 말로만 "배 부르게 하라" 하면서 정작 먹을 것은 주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 2: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약 2: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 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약 2: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믿음'없이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말로만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일 3:21]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요일 3:22]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요일 3: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일 3:24]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진짜 아들이 어찌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설 수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명'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23절). 이것을 요약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두 가지 큰 계명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두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
하라 하셨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를 그리스도
로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입니다. 결국 사도 요한이 언급
했던 두 가지 최고의 계명과 예수께서 언급하셨던 두 가
지 최고의 계명은 서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

[요일 4:1]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요일 4:2]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이라는 단어를 '거짓 선지자'란 단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많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 24: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는 마귀의 앞잡이입니다. 누구든지 거짓 선지자에게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면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을 하면서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 그룹이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는 '영지주의자'들로 인해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영지주의자들에 의해 주님을 떠나 복음을 등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2절)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지만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보통 사람처럼 사셨다는 사실을 부인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잘못된 생각은 육신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은 깨끗하지만 육신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활동만이 의로운 것이고 육적인 욕망과 행동은 모두 악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날 성도들 중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들 역시 영은 깨끗한 것이지만 육은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적인 행동을 금합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더럽게 여깁니다. 배우자와 성관계를 맺는 것도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것도 더러운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사는 것도 더러운 행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음식을 금합니다. 아주 자주 금식을 행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금욕주의자로 살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영지주의자들이 존경할만한 선지자였습니다. 엣세나파였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피해 살았습니

다.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도 더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동굴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필사를 할 때에도 목욕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주 금식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음식이 메뚜기와 석청이었던 것은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음식을 절제했기 때문입니다. 금식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주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마 3:4] 이 요한은 악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오늘날에도 세례 요한처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사뭇 영지주의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스스로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이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철저하게 금욕주의자이며 철저하게 영적으로 사는 이들의 모습은 일반 성도들의 눈에 의롭게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영지주의자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 경고의 음성을 말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들은 스스로 의롭게 사는 것 뿐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도 아닌 회색지대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요일 4: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일 4: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요일 4:5]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요일 4:6]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도 요한은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3절 상)고 말했습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할지라도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로 하여금 예수를 시인하지 못하게 가

로막는 자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 영'이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주의하십시오.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 그리스도'를 어떤 특정한 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는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황도 아니며 미국 대통령이나 유럽 대통령 중 한 사람도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는 오직 '마귀' 뿐입니다. 마귀만이 예수를 대적하며 예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 할 뿐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며 예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만일 내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를 대적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지만 사도 요한 시대에도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3절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마귀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6절 상)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니 마귀에게 속할 수 없습니다.

[요일 4: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일 4: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일 4:9]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일 4:10]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은 세

단어로 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들 모두 <알파>로 시작되었습니다. <아가페토이 아가포멘 알렐루스>. 이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문장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접속사 <호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국 버전에는 이 접속사 <호티>가 빠져 있지만 헬라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면 '...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누구든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때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자신의 파워가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찌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 중 대부분의 문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부부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8절)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의 동사인 <에 그노>는 '알다'<기노스코>의 부정과거형입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런 부정과거형을 사용했을까요? 이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안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한 사람일지라도 사도 요한의 이런 말은 매우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요일 4:11]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일 4:12]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요일 4: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 4:14]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요일 4:15]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

하느니라

[요일 4:16]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되십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만나고 싶어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비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롬 5:5]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

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큰 은혜이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큰 은혜이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큰 은혜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15절 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의 서신서에 계속적으로 '사랑'을 강조하면서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한 '하나님 사랑'은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큰 계명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일 3:23]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요일 4: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찌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요일 4: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요일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일 4:20]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일 4:21]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18절 상).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바울은 사랑이 은사 중 최고의 은사임을 강조했습니

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폐하여질 때 사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자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지만 사랑이 있는 자는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천국의 모든 것입니다. 사랑은 천국의 공기입니다. 이 세상의 공기는 산소이지만 천국의 공기는 사랑입니다.

“[고전 13: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전 13:5]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전 13: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전 13: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8]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전 13:9]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고전 13: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전 13: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

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전 13:12]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
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
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전 13: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
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요한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
를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
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
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20절 상). 사도 요한
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형제 사랑이 먼저이기 때문입
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제
를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
님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요일 5: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
남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일 5: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
을 아느니라

[요일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일 5:4]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
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
라

[요일 5: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켜 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너
무나 많고 지키기 힘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대
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613개의 율법
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율법입니다. 유
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
겼습니다. 613개의 율법 중 365개의 율법은 '하지 말
라'는 율법이고 나머지는 '하라'는 율법입니다. 지켜야
할 율법이 너무나 많고 지키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
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종
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될 때 바리
새인이 되고 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가 유대인이지만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사랑'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일 5: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요일 5: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일 5:8]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일 5: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

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요일 5: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요일 5: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일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 물과 피로 임하신...' (6절 상)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물'로 임하신 것은 세례를 받으심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피'로 임하신 것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며 '십자가'에서 그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

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 성령과 물과 피라...’(8절 상)고 말했습니다.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물과 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8절 하)고 말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는 사실은 이 세가지가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가지 외에 또 한가지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일 5: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네번째 증거는 ‘영생’과 ‘생명’이 모두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길 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단순한 ‘유대인 예수’가 아닙니다. 단순한 ‘선지자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얻길 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

니다. 병원을 즐겨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즐겨 찾아야 합니다. 병원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들 중 죽은 영혼이 많습니다. 육신은 살아 숨을 쉬고 있지만 영혼이 죽어 잠들어 있는 자각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

[요일 5:1]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일 5: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요일 5: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요일 5:4]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일 5: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켜 행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나 많고 지키기 힘든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613개의 율법은 모세가 쓴 모세오경에 담겨져 있는 율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습니다. 613개의 율법 중 365개의 율법은 '하지 말

라'는 율법이고 나머지는 '하라'는 율법입니다. 지켜야 할 율법이 너무나 많고 지키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제대로 율법을 지키는 자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는 자가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율법에 얽매인 삶을 살게 될 때 바리새인이 되고 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입니다. 그가 유대인이지만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율법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사랑'입니다. 613개의 율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마 22:37]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9]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 22: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이니라”

[요일 5: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요일 5: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일 5:8]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일 5:9]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요일 5:10]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요일 5: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일 5:12]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 물과 피로 임하신...’(6절 상)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물’로 임하신 것은 세례를 받으심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피’로 임하신 것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으며

‘십자가’에서 그의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 성령과 물과 피라...’(8절 상)고 말했습니다. 성령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물과 피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8절 하)고 말했습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는 사실은 이 세가지가 모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가지 외에 또 한가지가 더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일 5:11]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

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네번째 증거는 ‘영생’과 ‘생명’이 모두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길 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단순한 ‘유대인 예수’가 아닙니다. 단순한 ‘선지자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얻길 원하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병원을 즐겨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즐겨 찾아야 합니다. 병원을 더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들 중 죽은 영혼이 많습니다. 육신은 살아 숨을 쉬고 있지만 영혼이 죽어 잠들어 있는 자각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요일 5:13]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일 5:14]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일 5:15]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일 5:16]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요일 5: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에겐 영생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마음껏 활용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매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특권 중 매우 특별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범죄자를 위해 중보기도할 때 그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16절 상)고 말했습니다.

만일 사도 요한의 말대로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이 있다면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죄 범한 형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 형제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의 최고봉이 될 것입니다. 형제의 죄를 사함 받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은 '...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16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 12:3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마 12:32]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성령을 훼방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훼방한다는 말은 <블라스페미아>인데 이 말의 뜻은 '비방'. '중상'. '모독'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한다는 말은 '희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부인

하거나 완강히 거부하는 행위가 '거역'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군사들에 의해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마 27:29]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요일 5:18]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일 5:19]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요일 5:20]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요일 5:21]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18절 상) 아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데 예수께서 마귀를 막으시겠다는 말입니

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결코 마귀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19절 하) 것입니다.

데이빗의 영맥주석(David's Commentary):
요한일서

초판발행	2026. 10. 9
지 은 이	데이빗리목사
펴 낸 이	홀리타임즈
주 소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75-1
전 화	010-3280-7689(데이빗리목사)
홈페이지	www.RevivalForChurch.com
이 메 일	inourlove@gmail.com

참여성 **참목회자** 양성기관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BEST SOLUTION FOR SUCCESS LIFE
초강추! CHANCE

국제 신학교

꿈을 향해!
국제신학교에서
학습할거야~



강력한 능력으로 강력한 목회를 하고 싶습니까?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겸비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면 학비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역학 과정

사역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사역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사역자로 섬기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목회학 과정

목회학 학사과정

고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목회학 석사과정

대졸생으로 졸업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분

접수

수시 접수

합격자발표

개인 면접 후 통보

최고의 실력과 영성 능력을 겸비한 훈련과정

국제신학교는 성경과 성령 두 날개를 달고서 보다 강력한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자와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국제신학교를 통해 당신도 강력한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셔서 세계 최상의 신학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제신학교

서울시 송파구 마천로 51길 25
www.WSLseminary.com / 010-3280-7689

데이빗리 학장

University of Arizona 석사
University of Hartford 석사
Gordon-Conwell 신학교 목회학석사
한국교회부흥운동본부 대표

